

# [세계동물의 날 기념] 동물축복식 & 토크콘서트

## 토크콘서트 자료집

2015년 10월 8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

[세계동물의 날 기념] 동물축복식 & 토크콘서트

### 생명정의 공존평화 동물에게 희망을!

일시 2015년 10월 8일 오후 5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어린이와 동물은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 0순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반려동물에게 신의 은총을 받게 하고 싶으세요?  
세계 곳곳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동물에게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동물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10월 8일, **카라의 동물축복식**에 참여해주세요.  
그림출처: 네이버블로그/kutie21



**1부. 동물축복식**  
주최 임한옥 루피노

**임한옥 루피노**  
작은형제복지회(전)경의평화창조질서보전위원회 위원장

10월 4일, 생태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축복식은, 단순히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에게 은총을 주자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동물학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동물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축복인 점을 되새기며,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의식입니다.

**2부. 토크콘서트**  
대담 임순례, 장윤재, 유성희

**임순례** 카라대표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과연 성경과 예수님은 동물에 영혼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영혼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인 YWCA 한국본부는 왜 '동물정의, 나눔평화'란 주장으로 생명들봄에 나서고 있을까요?

카라 비전연구소 | KARA Korea Animal Right Association

주최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의 하나님 :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성서의 희망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세계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친구교가 함께, 또한 한국YWCA와 함께, 그리고 KARA의 주관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섯 개의 서로 연결된 이야기 조각들을 통해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지만 인간의 폭력과 학정에 시달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희망의 단초를 기독교 신학과 성서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 1.

문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cruelty)입니다. 모든 학대는 죄악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성모독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에 『동물신학의 탐구 :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대장간, 2014)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동물신학자인 앤드류 린지를 따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의 본유적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권리는 하나님의 가치 부여하심에 근거한 권리, 곧 ‘신적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바로 이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동물학대의 뿌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시각입니다. 피터 싱어의 지적처럼 동물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두 개의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그리스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독교에 의해 통합됩니다. 그래서 동물학대의 문제는 곧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히브리 성서(기독교의 구약성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지배권(dominion)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창세기 1:28)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역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피타고라스와 같은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사고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두 사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서구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는 성 바실이나 성 크리소스톰과 같이 동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중세교회와 신학의 기초를 놓은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리고 중세신학의 정점을 이룬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의 선(善)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에게 자애로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

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성이 사랑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퀴나스의 견해가 중요한데 그는 첫째로 동물은 정신과 이성을 소유하지 않았고, 둘째 그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셋째 따라서 동물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이러한 생각이 13세기 이래 서구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A”로 시작하는 세 명이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Aristotle, Augustinus, 그리고 Aquinas입니다. 특히 아퀴나스가 동물에 관한 한 기독교 신학과 서양문명에 쓰디 쓴 유산을 남겼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988년에 이르러서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신은 인간에게 지배권을 부여했으나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다른 생물을 임의로 죽일 자유가 없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기독교만이 동물에 대해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르네상스 휴머니즘 역시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물론 다빈치나 루소와 같은 채식주의자들이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한 데카르트는 동물이 한낱 “사고하지 않는 기계”(unthinking automata)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친 칸트 역시 동물은 자의식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의 뿌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신학과 철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아무 도덕적 제약 없이 자행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바로 이렇게 2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동물에 대한 서구의 주류 종교와 사상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서구의 지독한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신학과 철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골탈태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 2.

이렇게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신학과 철학이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는 교리를 낳았습니다. 이 인간중심주의는 종(種)우월주의 혹은 종(種)차별주의(species-ism)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종우월주의란 동물을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고 이 위계적 질서의 맨 꼭대기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역시 “인간이 자신의 우월성을 전제로 특정한 동물 종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종우월주의 혹은 종차별주의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us) vs 그들(them)’이라는 이항 대립적 틀 안에서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인간동물과 다른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유사성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항 대립적 경계선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대부분 본질

적이라기보다 정도의 차이라고 생물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철학은 이제 이 견해를 진지하게 경청해야만 합니다. 최재천 교수의 말대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들은 하나의 DNA에서 출발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sup>1)</sup> 그 가운데 어떤 DNA는 단세포생물 안에 들어가 살고 있고, 어떤 DNA는 거대한 고래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며, 또한 어떤 DNA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생물 종들과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은행나무 속에, 벚나무 속에, 고래 속에,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DNA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모두 '한 조상'에게서 갈려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인 구달은 우리 인간이 경이로운 동물계의 일원이며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기쁘게 인정하자고 강조합니다.<sup>2)</sup> 그녀도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크고 복잡한 두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발달시킨 복잡한 구어체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팬지와 유전자의 98.7%를, 고릴라와는 97.7%를, 오랑우탄과는 96.4%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말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브로카령'(Broca's area)이라 불리는 두뇌 부분이 비대칭적인 특징은 인간만이 아니라 침팬지, 보노보, 그리고 고릴라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주위의 다양한 생명의 형태들을 분류하고 단순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놀라우리만치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크고 잘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으며, 아주 복잡한 의사소통체계를 지니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 바로 밑에 유인원, 그 다음에 원숭이, 고래, 개, 그리고 쪽 내려가 곤충, 연체동물, 그리고 해면동물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이다. 큰 두뇌와 발달된 기술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여 지구와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제인 구달은 동물이 우리의 '친척'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동물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맘껏 기뻐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독교 신학자 프란츠 알트도 이에 화답합니다.<sup>3)</sup> "생명체는 모두 친척뻘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며, 모두 한 어머니인 물질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창조의 월계관을 자임하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친척관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동물과 인간은 친척관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한 주제'로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알트는

1) 이하 최재천, 『인간과 동물』 (공리출판사, 2007)을 참조하였다.  
2) 이하 제인 구달, 『생명사랑 십계명』 (바다출판사, 2003)을 참조하였다.  
3) 이하 프란츠 알트,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사람, 2013)을 참조하였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침묵은 수치스러운 침묵이며 피조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신중심주의지만 실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라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상과 무관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자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의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생명을 포용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제사에 의해 희생되어 왔던 동물의 기나긴 고통을 그치게 한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贖罪)의 피로 이제 동물은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양’의 역할로부터도 해방했습니다.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금껏 기독교가 인간의 초월성(우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재성(관계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식물은 ‘생혼’(生魂, 식물이 생활해 나가는 근본적인 힘), 동물은 ‘각혼’(覺魂, 동물의 감각하는 힘), 그리고 인간은 ‘영혼’(靈魂,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을 지녔다는 중세 이래 서양의 차별적 혼 이해를 비판합니다. 그 대신에 만물에게서 발견되는 자생성, 곧 야성(野性)을 신성한 것으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베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먹이를 찾고, 은신처를 만들며, 새끼를 낳아 키우고, 또 희로애락을 느끼는 한, 그것은 우주의 야성, 곧 창조적 신성의 표현들로 볼 수 있어야 인간중심주의적인 편협한 구원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태여성신학자 샬리 맥페이그는 인간이 가진 수학적 이성과 동물이 가진 실천적 이성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다고 할 필연적 근거는 없다고 논박했습니다. 이런 인간중심적 주장은 이성/감정, 정신/몸, 인간/다른 동물 사이의 위계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맥페이그는 동물, 특히 고등동물에게서 감정에 기초한 실천적 이성(친절, 용감, 우정, 인내, 관대함 등)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수학적 이성보다 더 열등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자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창조(creation)를 하나님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사건으로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제역 참사 현장에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모든 가축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는 구제역 파동 때 생매장되는 동물들의 수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며 수위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에는 인간에게 우선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이것이 종(種)이기주의에서 궁극

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라 비판을 받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환생(還生)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 동물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가르침과 달리, 또한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전통과도 달리, 동물을 인격으로나 기계로 보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 동물은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동물에게는 영성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약자의 도덕적 우선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구원으로부터 동물을 제외하는 것이 동물의 몰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들은 해명합니다. 이렇듯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조차도 아직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의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서는 동물권을 옹호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성서는 노예제와 성차별을 옹호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서가 인간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읽힐 필요는 없습니다. 성서가 노예제도와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 큰 영감을 준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동물의 해방과 권리와 구원에 대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학자 이영미 교수는 이 세계에 많은 창조설화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인간 창조 외에는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이들과 대조적으로 성서의 두 창조설화(창세기 1:1-2:3과 창세기 2:4-3:24)는 모두 식물과 동물의 창조를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노아의 홍수심판에서도 동물은 구원의 대상임을 환기시킵니다. 성서의 두 창조설화는 모두 이 세계를 인간의 단독적인 생활무대로 보지 않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땅과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생태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인간의 먹을거리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로 지어졌다고 성서는 확인합니다.<sup>4)</sup> 성서 역시 인간이 쓴 경전이기에 때문에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억압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위임받았음을 성서는 강조합니다. 또한 성서의 육식에 관한 기사를 분석해보면 여기서 인간은 고기를 취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생명 자체에 대한 독단적인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sup>5)</sup> 우리는 여기서 고기는 먹되 생명존중의 정신은 잃지 않

4) 창세기 1:29-3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5) 창세기 9:1-4,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

으려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신앙을 엿볼 수 있다고 이영미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임시적인 육식 허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철회되어 창세기 1장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의 창조세계로 되돌아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6)</sup>

### 3.

성서에서 동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와 무재기의 하나님 이야기 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A. P. & A. H. 휘터만은 『성서 속의 생태학』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길가메시의 방주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성서에서는 동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그들은 인간과 동등하게 독자적인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역설합니다.<sup>7)</sup> 바빌로니아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이고, 그 역시 기원전 약 1,200년 경에 방주를 만들어 목숨을 구하라는 그의 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길가메시도 자기 배에 동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 있는 동물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이 내린 지시 내용은 좀 다릅니다. “... 각종 생명이 있는 정자들을 배에 실어라.” 길가메시는 동물 자체를 신지 않고 그 정자만 신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물 수컷의 정충만 신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정자에서 동물이 스스로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았습니다.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길가메시는 자신 방주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은이며 금이며 ...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각종 생물의 정자를 그 안에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종(種)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 혹은 정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컷과 암컷 한 쌍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

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 6) 이사야 65:17-25,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도 마치고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 7) 이하 휘터만 부자(父子)의 책, 『성서 속의 생태학 : 성서에서 찾아낸 지속가능성의 원형』(광개토, 2004)를 참조하였다.

그렇다면 길가메시의 방주 이야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동물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쥐나 들쥐나 뱀이나 지렁이 같이 소위 ‘혐오스러운’ 짐승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전체 동물계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휘터만 부자(父子)는 이것이 인류가 파멸할 때 자연도 함께 파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자연은 인류와 하등 관계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 권리가 있는 이야기로 읽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은(자연은, 땅은) 결코 인간 ‘아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옆’에서 인간과 동등한 삶의 권리를 지닌, 하나님과의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대홍수 이후 길가메시의 생존과 복지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인간과 동물(자연, 땅)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창 9:8-13) 휘터만 부자(父子)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길가메시 방주의 결정적 차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동물에 관한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의 하나님 이야기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때문에 좀 더 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나 파멸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홍수’는 단지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문자적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7:11에 의하면,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깊음의 샘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의 그 최초의 순간으로 되돌아가봅시다. 창세기 1:2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물로 가득 차서 마른 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dome)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세기 1:6-7)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른 땅이 창조되고 그 땅이 자신의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궁창에 의해 거대한 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란 이와 같은 물의 분리를 취소하고 다시 하나로 합친 상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원래의 상태,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로 가득 찼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첫 번째의 창조세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타락(선악과



사건), 친형에 의한 동생의 살인,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수많은 죄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자체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세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 그러기 위해 그것을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는(“reset”)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이나 파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사야 65:17)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배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테바’는 상자와 같은 배입니다. 아기 모세를 구했던 갈대 상자와 같은 배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그 배가 바지(barge)선처럼 자체 동력도 없고 조향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보호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침반도 없고 노도 없는 방주가 성난 바다 위에서 홀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망망대해 위의 노아의 방주는 창조 이전 본래의 혼돈과 공허의 지점으로,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0점’으로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것입니다.

마침내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창세기 8:13)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노아의 번제로 인해 최소한 한 종 이상의 동물이 멸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동물의 암수 한 쌍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8:21)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 첫 번째 창조세계 속에서 인간과 땅은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자 땅도 저주를 받아 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창세기 3:18) 하지만 홍수 이후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인간들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자면 마치 ‘연좌제’처럼 하나로 묶여 있던 인간의 운명과 땅의 운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시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자기파멸로 향하는 인간의 성향으로부터 땅(자연, 동물)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셨던 명령과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리셨던 명령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28)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성서학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문화명령’으로 알려진 구절 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다음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과 비 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더 이상 없음]”(창세기 9:1) 여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거나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 이 이 중차대한 변화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문화명령’을 철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성서적으로 말하면 노 아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현재 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에게 내리셨던 ‘문화명령’이 더 이상 우 리들에게는 유효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문화명령’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 그 명령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취 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땅과 그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더 이상 인간의 죄와 운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사이의 이런 중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이에 어떤 연속되는 점도 있습니다.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9:1, 7)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 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첫 번째 행위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복을 주십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하 늘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창세기 1:21-22)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땅에서 생 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창세기 8:17) 성서의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복부터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크 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생명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무지개라는 이미지 때 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과 가슴을 사로잡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 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

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창세기 9:9-10)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누구와 함께 맺고 있는지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입니다.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등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창세기 9장 안에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와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있는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무지개 언약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의 모든 동물들과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삼자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수 이후에 땅과 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지배권(dominion)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합법적이고, 적법하며, 독립적인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독한 인간중심적인 성서독해는 창세기 9장의 이러한 핵심을 외면했고 또 보고도 못 본 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땅과 그 위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성서의 메시지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하나님이 또 다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를 있는 그대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창세기 9:11,15)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8:21) 하나님의 새 언약의 요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쓰인 성서의 내용이 그렇게 잘못 이해되어 왔을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거나, 인간에게 호의나 편애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귀에는 낯설고 이

상하고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하고 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서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성서는 지금 하나님이 단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결국 자기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 인간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무지개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폭력과 학정에 의해 고난 받는 모든 생명의, 특히 모든 동물들의 참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엘런 와이즈먼의 『인간 없는 세상』(랜덤하우스코리아, 2007)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인간의 역사’가 곧 ‘생명의 역사’의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4.

미국의 과학 역사가 린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1967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그의 유명한 논문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서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근본원인이 기독교의 ‘지독한 인간중심주의’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기독교가 가장 지독한 인간중심주의 종교라는 이 비판은 너무도 뜻밖의 충격이었고, 따라서 그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의 현대 기독교 신학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절대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임을 힘들게 변증해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기독교는 지구의 생태법정에 생태파괴의 주범으로 찍혀 피의자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언제나 인간을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합니다. 즉 창조세계의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온 우주와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평화의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특별한 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은 ‘형제 태양과 자매 달의 찬양시’(Canticle of the Brother Sun and Sister Moon)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깊이 되새길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66대 교황께서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비롯하여 「찬미 받으소서」와 같은 중요한 회칙을 발표하시는 걸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살았던지 ‘제2의 그리스도’라 불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의 아름다운 찬양시에서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나 ‘자매’로 호칭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주문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중에도 각별히 형제 햇님과 더불어 찬미 받으사이다.  
해님은 낮이옵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에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빛 맑고 보석같이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저들로써 떠받쳐 기르심이니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보배롭고 순결한 자매  
물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형제 불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형제 불은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의 자매요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더불어 온갖 과일을 낳아 주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고난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체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살아 있는 어떤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대죄 중에 죽는 이들에게 양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님,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지어다.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반복해서 노래하는 시인은 태양, 달, 별, 바람, 공기, 구름, 물, 불, 땅, 그리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히 프란치스코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시에

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도, 만물의 폭군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 혹은 자매인 ‘동료 피조물’(fellow creature)입니다. 기독교를 생태파괴의 주범이라 지목한 린 화이트조차도 이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민주주의’라 부르면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칭송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란치스코는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한적인 지배나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라는 사상을 거절하고 그것을 모든 피조물의 평등(혹은 ‘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만물 평등주의’는 한국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사상가들 안에는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만물을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보려했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중기 문인인 이규보는 만물이 각각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동일성으로 인해 하나라는 차원에서 ‘만물일류’(萬物一類) 사상을 펼쳤습니다. 조선 전기의 김시습은 ‘여물’(與物), 즉 사람과 만물이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대용은 천지만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사람과 만물을 균등하다는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왜 너는 하늘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느냐?”고 질타하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그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겸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인간 전체가 가져야 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창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서의 인간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노력했으며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찬양사에서 인간은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형제자매인 다른 모든 동료 피조물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찬양시에 나타난 우주관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서의 세계관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성서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 5.

미국의 과학사가 린 화이트 2세가 오래 전에 주장한 것처럼 우리의 현대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오만함에 너무도 물들어 있어서 그 과학과 기술만으로는 우리의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우리들이 가진 문제의 뿌리는 대개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반드시 근본적으로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며, 지금 우리에게 인간을 땅에 속한 존재로 이해하는, 보다 공동체적인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의 자의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위'나 혹은 '밖'에 존재하는 통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제공하는 물과 음식과 땅과 기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 다른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존재하며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그들에게 깊이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지구에 대한 인간의 착취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창세기 1:28에서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신의 명령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정복하고'(히브리어 '카바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히브리어 '라다')는 말은 지구를 착취하고 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들의 어원을 살펴볼 때 그보다 더 적합한 뜻은 지구를 위해 "노동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돌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동산 이야기(창세기 2:4-3:24)에 의하면, 인간은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겸손한 농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담' 혹은 사람을 '아다마' 혹은 땅의 먼지(흙)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는 이 '아다마'를 '농토'로 번역할 수 있고 따라서 '아담'을 '농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농토를 가지고 농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고 돌보라는 의미의 '경작하라'(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땅에 대한 돌봄과 경영이지 인간에 의한 땅의 소유와 지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중지시키고 모든 생명이 함께 조화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세우길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성서적 견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놓은 인간중심주의의 바벨탑을 기독교 스스로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은 이 땅의 인간과 동물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는 무지개의 하나님, 즉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창세기 8:21)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세기 8:22)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원래는 무기인 활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인간의 폭력과 학정 아래 고난 받는 모든 동물들에게 희망이 되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의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동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또 인간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당신 앞에 당

당한 계약의 주체로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지개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무지개와 친숙합니다. 날마다 무지개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색동옷을 입습니다. 한 살에서 일곱 살까지의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성인 남녀도 이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무지개를 먹기도 합니다. 저는 잡채를 볼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무지개 국수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과거 몽고인들은 한국을 가리켜 ‘소롱고스’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소롱고스’는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무지개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실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까치를 위해 감을 다 따지 않은 ‘까치밥’,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내 못 생명과 더불어 먹고자 한 ‘고시래,’ 콩을 심을 때 세 알을 심어 한 알은 새가 먹고, 다른 한 알은 땅 속 벌레가 먹게 한 농부의 배려, 길을 나설 때 미리 지팡이로 땅을 쿵쿵 울려 벌레들이 도망하게 한 세심한 나그네의 배려, 하루 수십 리씩 걸어야 하는 소들을 위해 소장수들이 소에게 신겨준 ‘쇠짚신’, 작은 생물이라도 해할까봐 뜨거운 물도 식혀 버렸던 어머니들의 세심한 살림살이, 소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은어를 사용하며 한순간에 소의 명줄을 끊고자 노력했던 백정들의 우직한 배려, 한 집안에서 더불어 먹고 사는 존재들을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생구(生口)라고 불렀던 포용적인 마음, 또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실천했던 채식위주의 삶 … 동물권 혹은 동물복지라는 의제는 이렇듯 서구에서 수입된 의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상에서 면면히 흘러왔던 아름다운 우리 것에 대한 반추(反芻)이자, 동시에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잇고 오늘 매일의 삶에서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의 추함에 대한 반성(反省)이 될 것입니다. 무지개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는 희망의 하나님, 무지개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생명존중의 삶을 살아야하겠습니다.